

10/25/15

설교 제목: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누가복음 13:1-9

- (눅 13: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절관주** 행 5:37
- (눅 13: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절관주** 요 9:2, 행 28:4
- (눅 13: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 (눅 13: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절관주** 요 9:7
- (눅 13: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절관주** 마 12:11
- (눅 13: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 (눅 13: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 (눅 13: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 (눅 13:9)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가을입니다.

이맘때이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입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들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훑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매일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듯이 가을은 열매들이 결실을 앞두고 무르익어감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곧 열매들은 수확되고 한 해는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열매가 거두어지고 마무리 되어져야 할 때가 오겠지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본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눅 13: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에서 ‘이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는 문맥상 앞에 언급된 것과 이 비유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5 절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이 비유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 절을 보시겠습니다.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저들의 제물에 섞어 제사를 지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눅 13: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눅 13: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또 다른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눅 13: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눅 13: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전후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위의 두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 '회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올 한해만 더 기다려 보았다가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자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눅 13:6 전)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 나무는 저절로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무화가 나무 자신이 아니라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자신이 나무의 주인이 아니듯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게 하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눅 13:7 전)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주인은 열매를 바라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일까요?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그 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열매를 맺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열매를 항상 두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인격의 열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생산의 열매 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함으로 얻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1) 인격의 열매

갈라디아서 5 장 22-23 절을 보시겠습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 가지 열매입니다.

이 귀절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는 9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²²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²³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 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9 가지가 아니고 하나인데 그 한 열매 속에 9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열매는 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만 하는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있는가? 내 인격이 얼마만큼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내가 얼마만큼 인격의 열매를 맺었는가? 입니다.

2) 재 생산의 열매(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리하여 내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목적과 의미가 살아 났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4.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눅 13: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눅 13: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눅 13: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눅 13:9)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열리기를 3 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3 년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고 화가 난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을 들어 주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때가 되었음에도 무화과 나무가 그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인은 가차없이 그 나무를 찍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도 찍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영원히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벧후 3:9) 주의 약속이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때입니다.
언젠가 이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매맺지 못하는 삶의 종국은 찍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 찍어 버려지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가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인의 회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의 회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 편에 서버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삶에 주인이 되어버린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식,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소속과 신분을 깨닫고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신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해야 할 또 다른 회개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의인으로 거듭나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영원한 속죄의 약속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마귀들은 계속 속삭여 댁니다.

“네가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고? 네가 어제 그런 짓을 하고서도 하늘 나라 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찍어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유하셔야 합니다.

성도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나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그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 Jonathan 과 David 이 저에게 얼마나 자유한지 지나치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언젠가 저의 남편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남편도 부모님께 저들처럼 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와서도 “엄마! Sorry!”하면 다 해결될 줄을 철썩같이 믿습니다.

아들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용서해 주고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지 어쩌겠냐 이거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긴 하지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해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겁니다.

저들이 제 앞에 저토록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엄마인 저를 그만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언제나 자신들의 곁에, 자신들을 위해 우뚝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치의 흔들림없이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아이들은 엄마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진정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혼내키고 야단을 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런 아이들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토록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들이 정말 내 새끼 같아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바보같고 못나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없이 사랑으로 받아 품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